

'정책 건의 보고서
(작은연구, 좋은서울)

2015.10

세운전자예술연구단

1. 정책건의 개요

(1) 정책건의 배경 및 목적

- 세운, 대림상가와 을지로 일대는 한국 미디어아트와 테크기반 자작(DIY 및 Maker Movement)에 자양분을 제공해 오고 있는 장소로 현재 이 일대의 테크 문화적 의미와 활용 방안에 구체적인 대한 연구와 실천 방안이 더욱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. 본 연구는 세운상가군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종묘-남산을 연결하는 입체 보행축 조성과 공공공간 재정비 등의 물리적인 사업과 맞물려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이다. 이를 위해 지역의 기술 및 산업 인프라가 미디어아트와 테크 컬처로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지점에 주목하고, 이를 미래가치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과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. 이는 현재 물리적인 재정비와 개선사업에 더하여 세운상가군 및 주변 지역 전체가 활성화 되기 위한 실질적인 콘텐츠와 운영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.

- 현재 서울시가 ‘서울형도심재생프로젝트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세운상가 재생 전략과 맞물려 본 연구과제는 세운, 대림상가 일대의 기술 산업 인프라를 현장 중심으로 조사 연구하고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구성되는 시계-키네틱-오토마타(Watch-Kinetic-Automata-Robotics) 도시 뮤지엄 전시 콘텐츠와 세운, 대림상가 일대 기술장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운영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. (예>현재 대림상가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백남준 전문 아트마스터와 함께 개최하는 기술 워크숍 등)

(2) 연구 목적

- 본 연구에서는 세운, 대림상가 및 을지로 일대의 기술 및 산업

인프라가 대량생산 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전문화되며 개인화하고 있는 욕구Wants, 디지털에서 새로운 아날로그와 테크-DIY를 지향하고 있는 기술 문화 흐름의 새로운 거점이 되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논증하게 될 것이다. 또한 제조업과 하드웨어 중심의 발전동력으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시점에 도시재생과 새로운 가치창출에 있어 위와같은 기술 문화의 새로운 흐름과 세운상가 군의 가능성이 왜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논하게 될 것이다.

- 현장의 기술 장인들이 젊은 미디어아티스트 및 메이커와 같이 진행하는 STEAM(Science, Technology, Engineering, Arts & Mathematics)워크숍은 중장년층 기술 장인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젊은 세대의 미디어아티스트와 공유하면서 이를 창의인재교육으로 연계하여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. 이는 지역 활성화와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과 뿐 아니라, 이 일대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의 경험과 기술력을 축적해 온 자산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. 여기서 말하는 '사례'란 활자화된 기획안 형태에서 더 나아가 본 연구 기간 중 워크숍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을 포함하고 있다.

2. 정책 연구 방법 및 내용

(1) 연구 방법

- 도시 계획 전문가, 영화 감독 및 디자이너, 큐레이터 등 학계와 현장 전문가로 연구진이 구성되어 이 일대에 대한 Artistic Research 형태의 조사 연구를 동시에 진행.(월 3회 이상의 촬영 및 영상기록, 인터뷰 아카이브 등)

□ 국내외 미디어아티스트와 메이커, 엔지니어 등이 현재 실질적으로 협업하고 있는 기술자 및 엔지니어링, 기술 장인을 조사하여 목록화하고, 이를 메이커 스페이스로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주민자치위원회 및 현장 주민들의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를 구체화한다. ‘메이커 스페이스’는 현재 지역 내(특히 세운 및 대림상가) 문제점으로 진단되는 외부인에게 폐쇄적인 문화와 접근성이 제한되는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적 비즈니스 모델이자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.

*메이커 스페이스(예정)란 외부 방문자와 이 일대 기술자 및 전문 업체들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 공간이자 직접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거점을 말한다.

(2) 주요 연구 내용

□ 세운, 대림상가 및 을지로 일대의 기술 장인 및 산업 인프라 연구
- 기술 장인에 대한 심층 인터뷰 조사 및 Artistic Research(추후 이 일대의 전시 및 출판, 시민 참여 세미나 등을 통해 공유)

□ 국내외의 미디어아티스트와 메이커, 엔지니어 등이 현재 이 일대에서 제작하고 협업하는 테크 컬처 모델에 대한 연구
- 특정 미디어 아트 작품이 구체적으로 이 일대의 지역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여 해당 결과물을 제작했는지와 향후 가능한 모델에 대한 분석 연구

□ 세운상가군 및 주변 지역 전체가 활성화 되기 위한 제시 모델 중,

“시계-키네틱-오토마타(Watch-Kinetic-Automata-Robotics)도시 박물관”의 전시 콘텐츠 및 박물관 내에서 운영될 세운상가군 기술 장인들의 STEAM워크숍 프로그램

- 오늘날 로봇틱스 기술의 시초가 된 시계공학과 키네틱 문화를 아우르는 도시 박물관 건립 등을 통해 외부인이 유입될 수 있는 계기를 적극적으로 확장한다. 이는 기존의 근대 유물 중심의 박물관과 달리 현재의 로봇틱스와 기술적 환경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드러내는 새로운 도시 박물관 패러다임이다.

(3) 정책 제안 사항

- 세운, 대림상가 및 을지로 일대는 새로운 테크 컬처를 주도하는 미디어아티스트와 메이커, 엔지니어들에게 뛰어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술 생태계이다.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세운상가군 일대의 자원과 특성이 디지털 아트와 제조, 미디어아트와 갖는 새로운 가능성을 현장성있게 재조명하고, 궁극적으로 이 일대의 기술 문화적 자원이 특정한 지역 활성화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서울을 브랜딩할 수 있는 매우 독창성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한다.
- 기술 장인들이 현장의 젊은 미디어아티스트와 메이커와 같이 진행하는 STEAM(Science, Technology, Engineering, Arts & Mathematics)워크숍은 기술과 전문성 그리고 경험을 가진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그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창출하고 공유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. 이와같이 지역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소위 말하는

‘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’에 대한 대안적 사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

- ‘시계-키네틱-오토마타(Watch-Kinetic-Automata-Robotics)도시 박물관’건립 제안은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될 사례 중의 하나이다. 이는 세운상가군 기술 장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근대 시계 및 키네틱 관련 유물들과 시민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박물관이 이 곳에 건립되기를 바라는 지역 주민과 기술 장인들의 의견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.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활성화와 일반 시민들의 외부 유입 빈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자 지역 자원을 활용한 세운상가군 활성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.